

1) 호소와 하천

호소나 하천의 생성요인이 인공이든 자연이든 간에 호소의 생태계는 폐쇄적이고, 하천의 생태계는 유속과 수량에 따라 개변상황이 변화하며 하천의 이용상황에 따라서도 자연성이 결여된다. 순천지역의 호소는 자연호소와 자연늪지는 없고 인공호와 저수지가 하천에 따라 축조되어 있다. 순천지역 하천 54개소의 총연장은 342km이며, 댐은 주암댐 및 상사조절지댐이 있다. 크고 작은 저수지가 호소와 하천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유입하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성강의 주암댐(높이 57m, 길이 330m, 총조수량 457억 m^3 , 만수면적 33.0 km^2)으로 유입하는 하천은 보성강(24.9km : 직할하천), 외서천(5.1km), 월암천(1.8km), 송광천(18.0km), 장안천(7.3km), 신평천(3.5km), 신성천(2.3km), 후곡천(2.6km), 삼청천(3.9km), 대광천(3.9km), 동북천(1.4km) 등이다. 보성강으로 유입하는 하천은 용촌천(5.8km), 장동천(1.7km), 갈마천(1.5km), 행정저수지, 주암천(10.1km), 광천(5.3km), 백록천(5.6km) 등이다. 이들 하천은 섬진강(5.1km : 직할하천)을 이루어 광양만으로 흐르며, 신성천(3.1km)도 광양만으로 흐른다.

상사조절지댐(높이 106m, 길이 575m, 총저수량 250억 m^3 , 만수면적 7.5 km^2 , 발전량 2만 2,500kW)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도정천(2.1km), 두월천(2.7km), 쌍암천(8.4km), 신선천, 선암천(5.0km), 월내천(1.8km), 남정천(5.0km), 목촌천(3.9km), 석흥천(14.8km)이다. 초곡천(3.8km), 상사천(5.7km)은 이사천(32.0km : 준용하천) 분류와 합류하여 순천만으로 흐른다.

서천(10.9km), 운평천(3.8km), 죽청제, 구상천(8.5km), 건천저수지, 동천(20.3km), 석현천, 석현저수지, 옥천, 옥천저수지, 해룡천(8.1km), 대동저수지, 조례저수지 등의 하천은 동천·이사천과 합류하여 순천만으로 흐른다. 그리고 대동제, 동초천(7.3km)도 순천만으로 흐른다. 별교천과 합류하여 별교만으로 유입하는 하천은 낙안천(5.0km), 교촌천(5.0km), 낙안저수지, 운동천 등이다.

월룡천(1.7km), 운월저수지, 월룡저수지, 죽청천(1.9km), 평촌천(5.6km), 덕림천(1.6km), 회룡천(6.8km), 봉덕천(4.1km)은 황전천(18.5km)이 되어 구례구에서 섬진강과 합류하여 광양만으로 흐른다. 그리고 순천시 주변 옥천에 순천호, 야흥동의 야흥저수지, 향림천의 석현저수지, 서면의 지분제, 해룡천의 대동저수지와 조례저수지 등은 저수지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해룡천도 연향동아파트 숲속에 묻혀버려 하천생태계 기능을 잃고 있다.